

세상을 푸르고 깨끗하게 미래와의 약속, Responsible Care

한국RC협의회는 화학산업의 환경·안전·보건 개선활동인 RC를 추진하기 위해 석유화학, 정밀화학, 비료, 클로르알카리,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를 비롯해 기타 화학관련 기관들이 함께 설립한 단체입니다.

환경



능동적·선제적 대응

안전



지속가능한 발전

보건



인류의 풍요와 윤택한 삶

Responsible Care

48

Issue No



CONTENTS

04

ISSUE

2022 RCLG 상반기
리더십 회의결과

10

SPECIAL REPORT 1

정부의 ESG 인프라 확충
정책 방향

16

SPECIAL REPORT 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실태조사

20

RC뉴스룸

사무국 주요활동

22

회원사 소식

주요회원사
동향 소식

26

회원사 리스트

27

캘린더

통 권: 제 48호
발행인: 심홍섭
발행처: 매경바이어스가이드
발행일: 2022년 6월 28일
전 화: 02-3668-6173
E-mail: rcmaster@krcc.or.kr
홈페이지: <http://www.krcc.or.kr>

Responsible Care®는 화학제품의 개발에서부터 제조·판매·유통·사용·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환경과 안전,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배려하고, 경영방침에 이를 공약하고 실행함으로써 환경 안전보건 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화학 산업의 자발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인류에게는 풍요로움을
후손에게는 더 나은 세상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한국RC협의회는
한마음 한뜻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활동과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Responsible Care
means international
voluntary activities
for the chemical industry

promote improvement
of the environment
and the safety and health
of the people

Responsible
Responsible Care Issue
Vol.48
Care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무단전재를 금하며,
수록된 내용은 본회의 공식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2

RCLG 상반기 리더십 회의결과

2022년 상반기 국제화학단체 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f Chemical Association, 이하 'ICCA') RC 리더십그룹 회의가 2022년 3월 15~16일에 영상 회의로 진행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RC 리더십 그룹의장 및 회원국 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ICCA 산하에는 에너지·기후변화, 화학물질정책·보건, Responsible Care, 커뮤니케이션, 플라스틱 등 5개 분야의 리더십그룹이 운영되고 있으며, 각 리더십그룹에서는 분야별 주요 이슈 및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해 반기에 1회씩(연간 2회) 회의를 개최 해오고 있다.

이번 RC 리더십그룹 회의에서는 RC 자체평가 툴 개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ICCM-5 제출을 위한 데이터 수정 및 보완, KPI 데이터 취합 프로세스 수정 및 개선방법 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RC 리더십그룹 회의에서 논의한 주요 안건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려 한다.

1 Global Charter 서명 현황

- (목적) SAICM에 대한 화학산업의 약속의 일환으로 RCLG 모든 회원국이 Global Charter에 서명키로 함(2020년~)
- (현황) 총 63개 회원국 중 현재까지 60개국이 서명 완료하였으며, 모든 회원국이 서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음(KRCC 2020년 서명 완료)

2 ICCA Self-ASSESSment Tool Working Group Update

- (목적) 전 세계 화학 기업을 위한 ICCA Responsible Care 자체 툴 개발
- (배경) Cefic에서 기업의 관리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진행 상황을 추적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자체평가 툴 개발
- (현황) RCLG는 Cefic의 피드백과 툴을 활용하여 전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함으로써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 RC 이니셔티브에 참여시키고 프로그램을 다른 나라, 조직에서 유사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함
 - Cefic 자체평가 툴 유저 통계 현황(24개국 536개사가 690개 현장에서 활용, 대기업 47%, 중기업 37%, 소기업 14% 응답)
- (향후계획) 자체평가 툴 개정은 2022년 1분기까지, 웹사이트 자체평가 툴이 완료된 이후부터 시작하여 2022년 2분기까지 개발 완료 예정
 - 작성 기한은 매년 11월 30일

3 Peer Mentoring Experts Network Working Group

- (목적) ① RC이니셔티브를 통해 국가별 화학물질 관리 체계를 성공적으로 이행하도록 안내 ② 다양한 화학물질 관리 및 안전 관련 국가별 단체 교육·홍보 행사에서 연사로 활동할 수 있는 경험 있는 실무자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결과) 신규 국가·협회 지원 역할을 포함하는 동료 멘토/전문가 네트워크 구축(9개 전문 분야에 숙련된 21명의 전문가)

- 국가별 단체의 워크숍 및 기타 행사에 지원 제공이 가능한 숙련 실무자 위주
- 협회 및 ICCA 리더십 그룹이 개발하고 원격 제공이 가능한 자료를 포함하여 워크숍 및 기타 이벤트에 사용가능한 교육자료 개발
- (전문가 분야 리스트) RC이니셔티브, GHS 분류 표시 및 교육, 안전 보관 및 취급, 제품 책임주의, 실행 코드 개발, 육상·해상·항공을 포함한 위험물 수송, 비상 대비, 유해 폐기물 관리 관련 전문가
- (현황) 국가별 신규 회원사 및 RC 인지도 향상을 위한 RC 홍보동영상 제작 중
 - RC 교육자료 및 RC 관련 문헌에 대한 라이브러리화(시스템 구축)

4 KPI Working Group 진행현황

- (목적) ① ICCM-5 제출을 위한 데이터 수정 및 보완 ② KPI 데이터 취합 프로세스 수정 및 개선방법 모색
 - RCLG 사무국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ICCA가 회원단체의 KPI 취합 결과 분석을 토대로 UN SAICM 목표와 비교하여 화학산업을 평가 중이며, 현재 회원국 단체에서는 매년 근로자 안전보건, 환경 성과, 운송사고, 자원 사용에 대한 KPI를 보고 중
- (문제점) KPI 분석을 위한 데이터(수치) 및 신뢰도 부족
 - 화학제품의 글로벌 생산량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받지 못함
 - 국가별 산업분류 및 보고 회원국 및 회원사 수 등 기준이 매년 상이
 - 많은 회원국에서 회원사 데이터 제출을 강제할 수단이 없으며, 일부 회원국에서 회원사 데이터 제출을 강제할 수단이 없으며, 일부 회원국에서는 회원사로부터 직접 데이터를 받지 않고, 국가 통계 등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분석
- (필요사항) ICCM-5에 제출할 데이터 수정 및 보완
 - 2021년 이후 공개될 KPI 데이터 수집 프로세스 개선 등
- (개선사항) KPI 보고 시스템 개선 검토
 - 입력 단위 통일을 위한 가이드 제공, FAQ 문서 개발, 데이터 질 향상을 위한 추가 웹사이트 개발
 -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검토(데이터 일관성 및 질적 향상, 취합 등)



5 UNEP Engagement Update

- (추진내용) UNEP 관계자 이해 도모를 위한 RC 브리핑 진행
 - RC 개요, 연혁, 주요 추진 활동 및 주요 회원국(아르헨티나, 인도, 스리랑카)의 RC 프로그램을 소개
 - UNEP의 RC 참여와 피드백은 매우 긍정적이며, 향후 RC 관련하여 ICCA와의 협업 기회를 제안
- (계획) 향후 UNEP과의 협업 추진
 - RC 홍보 동영상 및 글로벌 자체평가 툴을 UNEP 네트워크를 통해 홍보
 - RCLG 및 Capacity Building TF에 대한 UNEP 지원
 - RC 멘토링/전문가 네트워크에 대한 UNEP 참여
 - RC, GHS 채택 및 이행 증진을 위한 협업 추진

6 Communications Update

- 2021 RCLG Status Report에 주요 기업 및 협회 활동 소개, ICCA 홈페이지에 원본 및 번역본 제공
- RC 혜택을 알리는 3~5분 정도의 영상을 홈페이지에 업로드
- 국가별 협회 자료 제공 시, ICCA 웹사이트에 활용 가능

7 Aftica Task Force Update

- (목적) 아프리카 전역에 Responsible Care 이행 향상
- (현황) 이집트, 모로코, 남아프리카의 관련 협회 활동 소개
 - 케냐의 RC 가입 신청(21.9월) 및 가입 승인(22.3월)
 - 가나, 세네갈, 코트디부아르, 튀니지에 RC 도입 지원
- (계획) 2022~2025년 주요 계획
 - 신규 가입한 케냐에 RC 도입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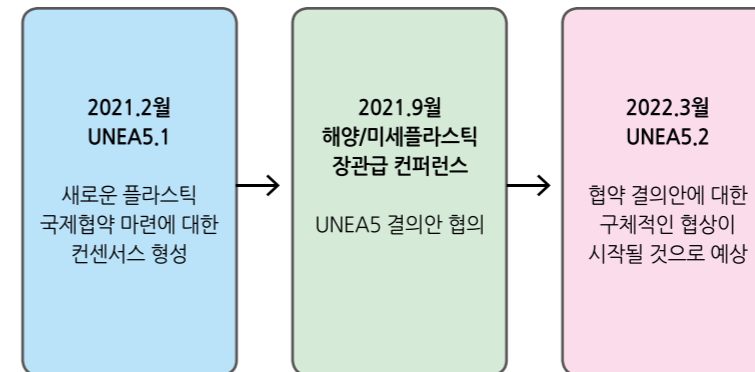
- GHS 기반 화학물질관리 규제 관련 UNEP/ICCA 프로젝트 지원
- 현지 기업의 GHS 시스템 도입의 지속 지원

8 China Work Plan Update

- (주요내용) Responsible Care Standard 표준화 작업 진행
 - 7개 분야 74개사가 참여하는 중국 RC 전문가 조직 구성(국내·외 전문가 100여 명으로 구성)
 - 개인 교육 및 온라인 러닝 포털 운영을 통한 컨퍼런스 개최 및 소통 강화 RC이행 3개년 계획 진행 중(2021~2023)
 - RC 이행 3개년 계획 진행 중(2021~2023)

9 콜롬비아 시범 프로젝트

- (주요내용)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이행 지원
 - 산업계 이행을 위한 GHS 교육자료 개발(기술적 가이드 및 교육프로그램)
 - Capacity Building 지원(2021 개최 세미나에 21개국 220명 참여)
 - LARCF(Latin America Regulatory Cooperation Forum)
 - 시범 프로젝트에서 ICCA에서 개발한 GHS 이행 자료 배포



10 CP&H(화학물질) Leadership Group 추진경과

- UNEA(UN환경총회) 경과
- 신규 플라스틱 국제협약 주요 내용(안)
 - ① 첨가제 규제를 포함한 플라스틱의 생산 및 설계에 초점 ② 국제 플라스틱 규정의 조화 ③ 폐기물 관리 인프라 및 처리를 위한 혁신 기술 개발 등
- 플라스틱 첨가제 규제 강화 동향
 - 유독성 플라스틱 첨가제가 순환경제의 장애물로 부상하고 있으며, 재활용 과정에서 유독성 첨가제 누출 우려
 - 현재 6,000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플라스틱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며, 그 중 25%가 우선순위물질
- CiP(Chemicals in Product : 제품 내 화학물질을 다루는 UNEA 산화 조직) 권고사항
 - 투명한 공급망 관리를 위한 전체 화학물질 및 플라스틱 수명주기를 관리하고, 글로벌 플라스틱 및 관련 화학물질 및 관련 화학물질 프레임워크 시행
 - 순환경제로의 산업 전환에 투자 및 SAICM beyond 2020과의 시너지를 도출하고, 순환경제에 적합한 새로운 플라스틱 및 재활용플라스틱 제로를 위한 신기술 연구 자금 집행
 - 시민, 기업, 투자자를 대상으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플라스틱 및 관련 화학물질 교육

11 E&CC(기후변화) Leadership Group 추진경과

- (탄소 투명성 파트너십) 올해 수송 및 물류 분야의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scope3가 반영된 제품 탄소 라벨을 도출하고 COP27에서 발표 목표
- (탄소중립 프로젝트) 대륙별 11개 국가 및 15(+1)개 제품에 대해 현재 배출량 및 회피배출량 자료 수집 및 gap 분석
 - 지역별 배출량 : 전체 배출량(scope1, 2, 3)은 19억 3백만톤으로 scope1, 2가 60%, scope3가 40%를 차지
 - 제품별 배출량 : 암모니아, 메탄올, 에틸렌 순으로 배출량이 높았음

- 공정별 배출량 : 석탄기반 암모니아, 천연가스 개질기반 암모니아, 석탄기반 메탄올 생산 순으로 배출량이 높았음
- (Advocacy TF 계획(22년)) 탄소중립을 위한 혁신적인 솔루션으로서의 화학산업을 '미래를 가능하게' 하는 산업으로 포지셔닝,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ICCA 내부 인사를 포함한 국제 커뮤니티 주요 관계자와의 네트워크 개발
- (Carbon Pricing Mechanism) 2050년 탄소중립에 도전하는 기업들의 평가를 추진하고, 개별 회사의 자발적 목표와 달성에 따른 새로운 탄소 배출권 시장 형성 및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위한 제도설계 및 참여 기업 모집 예정

12 RCLG 예산 검토(2022년)

< 2022 RCLG 예산 >

Budget Review	Requested	Expenditures
(RCLG + CBTF) Total	416,500	194,475
RCLG(Total)	186,500	17,475
Consulting Services	30,000	1,100
KPI Reporting Tool Hosting	21,500	16,375
KPI Reporting Tool Improvement (Self-Assessment Tool)	135,000	
RC Brand Protection	-	
CBTF(Total)	230,000	177,000
Capacity Building in various countries	150,000	107,000
RC Expansion in Africa	10,000	
Pilot Project, India	70,000	70,000

* 2021 총예산 EUR 416,500(약 574백만원)

13 향후계획

- (RCLG) 하반기 RCLG 회의는 9월 7~8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 예정이며, 회의방식은 온·오프라인 병행을 검토 중
- (KRCC) 상반기 RCLG 회의결과를 회원사에 안내·공유할 예정 🌱



정부의 ESG 인프라 확충 정책 방향

요즘 가장 핫한 이슈 중의 하나가 ESG이다. ESG는 투자결정 및 기업 경영에서 재무 수익 외에 환경(E)·사회(S)·지배구조(G) 등 비재무적 요소를 적극 고려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가리킨다. 이는 장기수익성을 추구하는 개념으로 코로나19로 기후위기 대응이 시급해지고 양극화가 우려됨에 따라 ESG 논의가 가속화되었다. 이에 따라 산업연구원에서는 '정부의 ESG 인프라 확충 정책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본 보고서를 통해 ESG가 글로벌하게 확산된 과정과 국내 동향, 그리고 정책 방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글로벌 ESG 동향

ESG는 글로벌 금융회사 등이 ESG 이슈를 투자에 반영해야 한다는 UN의 2006년 사회적책임투자원칙(PRI, Principle for Responsible Investment, 가입기관 3,000개 이상, 자산 규모 100조 달러 이상(2020년 기준)) 발표 이후 활발하게 논의되었는데,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의 ESG 투자 선언(저탄소 전환 목표 미부합 기업에 대한 투자철회 및 의결권 행사 경고, 2020년 1월)을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이후 글로벌 자본시장의 ESG 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투자를 받는 기업들, 특히 글로벌 대기업이 ESG 경영을 공식적으로 선언함으로써 이제 ESG 논의는 사회적 담론을 넘어 기업·투자자의 자발적 행동변화를 촉발하는 메가트렌드로 부상하게 되었다. 한편, 기업들의 ESG를 평가(예 : MSCI, S&P)하고, 필요한 데이터(예 : 톰슨 로이터, 블룸버그) 및 컨설팅(예 : KPMG, Broadridge)을 제공하는 새로운 비즈니스가 확대되는 등 관련 생태계가 발전하고 있다.

ESG는 시장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문제점도 안고 있다. ESG 개념이 넓어 환경 및 사회적 가치 관련 경제활동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OECD(2020년)는 국제적으로 수용 가능한 일관성 있고 의미 있는 공시원칙과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UN PRI)

환경(Environment)	기후변화, 자원고갈, 물, 공해, 삼림파괴
사회(Social)	인권, 현대노예, 아동근로, 근로조건, 근로자 관계
지배구조(Governance)	뇌물부패, 경영진 보상, 이사회 구조, 정치적 로비, 조세전략

이에,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는 이러한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ESG 관련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EU는 공시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가능금융공시를 2021년부터 의무화했고, 근로자 250인 이상 기업의 지속가능성정보공시를 2023년부터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 관련 경제활동을 분류하는 그린 택소노미를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소셜 택소노미는 2021년 초안을 마련하고 논의 중에 있다. 아울러 역내 대기업들의 환경·인권 관련 공급망 실사 의무화 법안을 마련하고, 2024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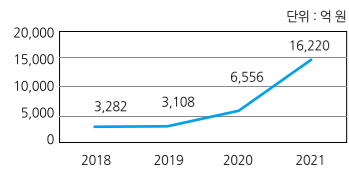
국제회계기준위원회(IFRS, 2022년 중 정보공시표준안 발표 예정)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ESG 공시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국제자본시장협회(ICMA), 기후채권이니셔티브(CBI), 국제대출시장협회(LMA)는 ESG 채권(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자속가능채권이 존재)과 대출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 금융상품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동향

우리나라도 글로벌 트렌드에 맞추어 ESG 생태계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투자 부문에서 연기금 및 주요 금융기관이 ESG 투자를 추진함에 따라 ESG ETF 및 ESG 채권 등 관련 시장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은 ESG 투자 확대(2022년 AUM의 50%), ESG 통합전략 가이드라인 마련(2021년) 등 적극적 활동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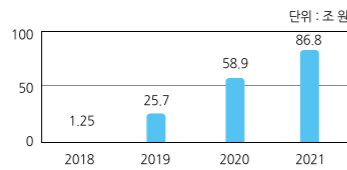
기업들도 ESG 경영을 활발하게 도입하고 있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ESG 포럼 개최(대한상의 등), ESG 위원회 등을 발족(경총, 전경련 등)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삼성, SK, LG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ESG 전담 조직 신설 등 ESG 경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아울러 다양한 기관(컨설팅사, 신평사, 언론사 등)이 ESG 컨설팅 및 평가 등에 참여하며 국내에도 ESG 관련 비즈니스가 확대되고 있다.

국내 ESG ETF 운용 규모



자료 : 에프앤가이드

국내 ESG 채권 발행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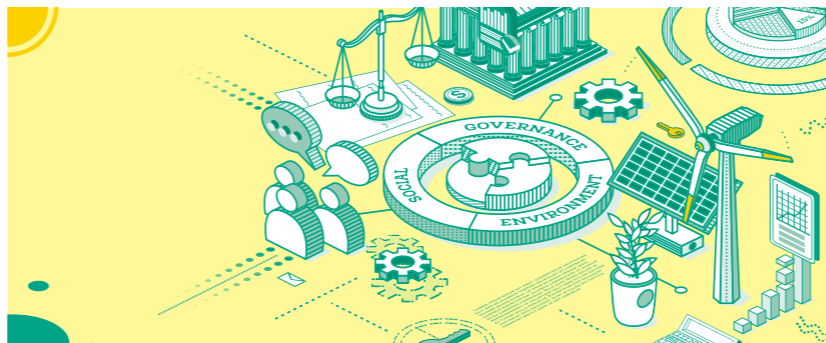


자료 : 한국거래소

그러나 우리나라 ESG 생태계는 공시 기준 미흡, 탄소노미 등과 같은 국제공통의 문제에 더하여 고유의 문제도 안고 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ESG를 경영 부담(시간, 비용 등)으로 인식하고, 체계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또한, ESG 관련 각종 정보공개제도가 부처별로 각각 운영[예 : (공시정보) 거래소 KIND, (투자정보) 거래소 사회적책임투자채권 홈페이지, (환경정보) 환경정보공개시스템, (고용정보) e고용노동지표 등]되어 체계적인 정보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국내 주요 ESG 평가기관 중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은 아직 없다.

국내 주요 평가기관 현황

평가기관(설립연도)	평가항목	비고
기업지배구조원(2002)	18개 대분류, 281개 항목	거래소 ESG ETF에 활용
서스틴 베스트(2006)	핵심영역 14개(E4, S4, G6)	산업별·규모별 ESG 평가
대신경제연구소(2019)	비공개	-
지속가능발전소(2013)	15개 이슈(E5, S5, G5)	AI 기반 평가기관



정부 정책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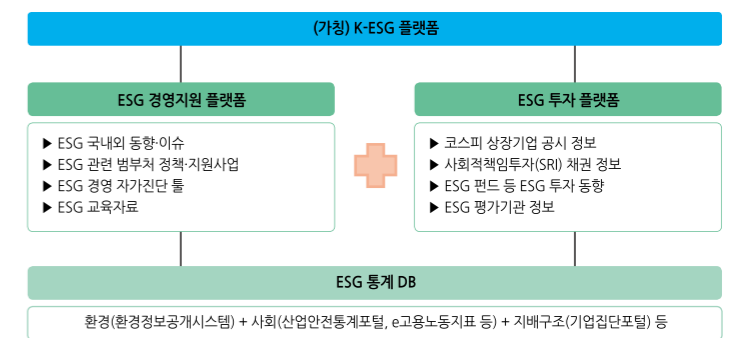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여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ESG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먼저 정보공시 확대이다. 코스피 상장기업의 경우,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는 의무화되어 대상을 확대 중에 있으며,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통상 ESG 공시를 의미)는 현재 자율공시 중이나,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한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ESG 관련 각종 정보공개제도[(E) 환경정보공개(환경부), (S)고용형태공시(고용부), (G) 기업집단현황공시(공정위) 등]와 ESG 공시 간 공시 항목·시기 등에 대한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둘째, 기업의 공시 활성화를 위해 K-ESG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2021년). 이는 공신력을 갖춘 국내의 주요 평가·공시기관의 평가지표와 측정항목을 분석하여 공시·환경·사회·지배구조 4개 분야 총 61개 항목을 제시했고, 중소기업이 우선 적용할 수 있는 27개 문항을 선별 제시하였다.

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주주의 권리,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등
 - ▶ (2019년 기시행) 자산 2조 원 이상 → (2022년) 1조 원 이상 → (2024년) 5,000억 원 이상 → (2026년) 전 코스피 상장사
2.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환경 관련 기회·위험요인 및 대응계획, 노사관계·양성평등 등 사회이슈 관련 개선 노력 등
 - ▶ (2025년) 일정 규모(예 : 자산 2조 원) 이상 → (2030년) 전 코스피 상장사

셋째, 시장 참여자들에게 정보제공을 위해 ESG 경영 및 투자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스템 간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 코스피 상장사의 ESG 공시 정보, 사회적책임투자채권 및 ESG 펀드 등 투자정보 등을 제공하는 투자 플랫폼을 2021년 12월 한국거래소에 구축했고, ESG 국내외 동향·이슈, 범부처 정책 및 지원사업, 자진진단 툴을 제공하는 경영지원 플랫폼은 2022년 상반기에 구축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ESG 정보 플랫폼 구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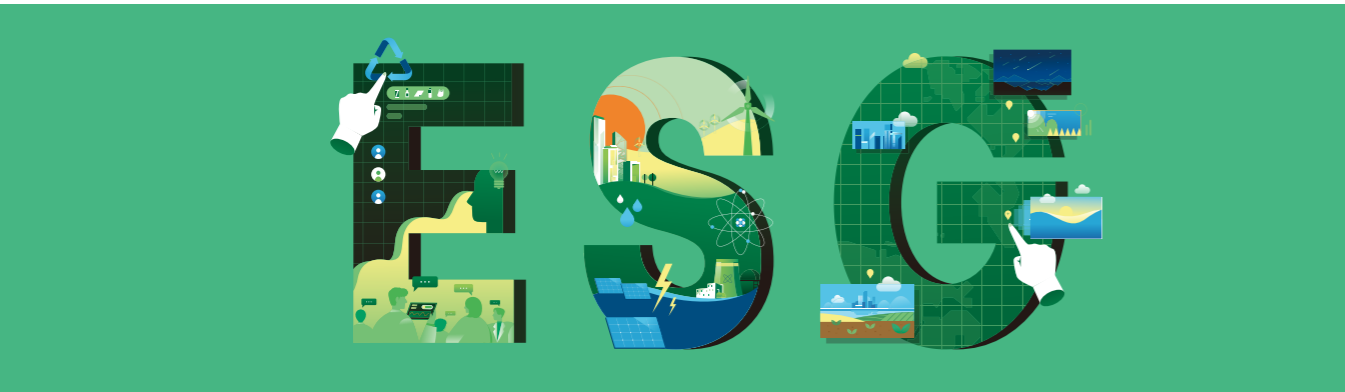


넷째, ESG 평가기관 가이드스를 2022년 중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평가기관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자격요건(평가독립성 등)을 규정하고, 특히 평가방식, 평가결과 등에 대한 정보공개 활성화 등을 통해 평가결과의 공정성·신뢰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다섯째, 그린워싱(친환경 위장주의)을 방지하기 위해 녹색활동의 판단 근거가 되는 녹색분류체계를 2021년 12월 마련하였다. 이는 64개 녹색경제활동, 5개 전환활동(LNG발전, 블루수소 등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해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범사업을 거쳐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녹색채권을 우선 적용하고, 녹색대출, 녹색펀드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EU는 우리의 녹색분류체계에서 제외된 원전이 포함된 초안(2월 2일)을 발표했는데, 논의 과정을 살펴보고 이의 포함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여섯째, 녹색채권 가이드라인(2020년 12월)에 이어서 사회적채권 발행 촉진을 위해 발행 절차, 대상 사업, 사회적 효과 산정 방안 등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2022년). 이 경우 국제자본시장협회(ICMA) 및 일본의 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 EU 소셜 택소노미(2021년 7월 초안 발표) 논의 동향 등을 바탕으로 국내 법·제도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일곱째,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 관리로 수출 기업 및 하도급 기업의 ESG경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이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대·중소기업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기업의 협력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대·중소기업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기업의 협력사에 대한 ESG 경영지원 실적을 동반성장지수 평가지수에 반영(2021년 6월)하고,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ESG 경영지원 관련 비용(ESG 교육경비, 수준 진단 및 컨설팅 비용)을 연구·인력개발 새액 공제 대상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공급망 실사 사전대응 차원에서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공급망 실사 모의평가·컨설팅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공공 부문이 ESG 경영을 선도해 나갈 것이다. K-ESG 등을 반영하여 공공기관의 자율공시 항목을 확대하고, 코스피 상장 여부 및 기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2025년부터 단계별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의 무화(예 : 상장공기업 → 시장형공기업 → 준시장형공기업)를 검토할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특성에 따라 ESG 경영중점 목표 및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ESG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2022년). 아울러 연기금의 ESG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금운용평가 중 'ESG 투자'에 대한 별도 배점을 신설(2021년)하고, 국민연금은 ESG 통합전략(투자의사결정을 위한 재무분석 프로세스에 ESG요소를 체계적·명시적으로 융합)의 적용 확대, ESG 평가체계 개선 등을 통해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한편, 금융상품의 다양화를 위해 지속가능연계채권(SLB, 발행기관이 사전에 설정한 지속가능성 목표 달성 상황에 따라 재무적·구조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채권)과 지속가능연계대출(SLL, 차입기업과 대출기관의 협의에 따라 선정된 ESG 평가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금리 수준이 변동하는 대출상품)의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ESG는 국가가 주도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는 달리 글로벌 자산운용사, 연기금, 대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고, 경제구조가 저탄소·포용·공정경제로 전환하는 동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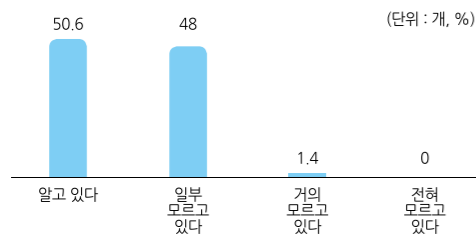
100일 실태조사

중소기업중앙회가 중대재해처벌법이 100일을 맞아 전국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504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50.6%가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기업의 81.3%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경영상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는 중소기업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인지도와 경영상 부담 정도 외에도 법 준수 여부, 현장 중심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사항 등을 동 보고서의 내용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자.

1.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인지도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인지도에 대해 물어본 결과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기업이 50.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일부 모르고 있다'(48.0%), '거의 모르고 있다'(1.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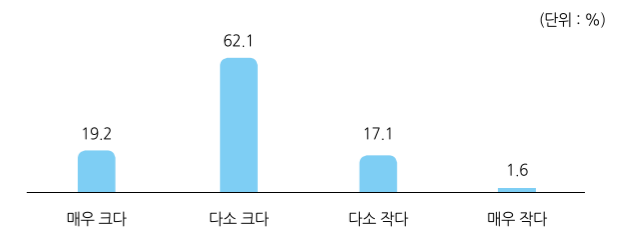


2.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경영상 부담 정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경영상 부담 정도로, 부담이 크다(매우 크다+다소 크다)라고 응답한 기업은 81.3%로 조사됐다. 반면, 부담이 작다(다소 작다+매우 작다)는 18.7%에 그쳤다.

소재지별로는 '비수도권'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경영상 부담 정도에 대해 부담이 크다고 응답한 기업은 87.9%로, '수도권'(74.6%)보다 13.3%p 높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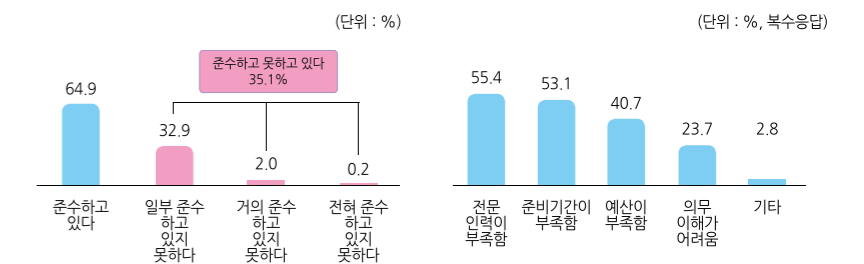
3.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준수 여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준수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기업이 64.9%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일부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32.9%), '거의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2.0%), '전혀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0.2%) 순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그 이유를 묻자 '전문인력이 부족함'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55.4%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준비기간이 부족함'(53.1%), '예산이 부족함'(40.7%), '의무 이해가 어려움'(23.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기타 응답으로는 '준비 중', '경영자의 심도 있는 고민과 관심 부족'이 2.8%를 차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준수 여부

중대재해처벌법 미준수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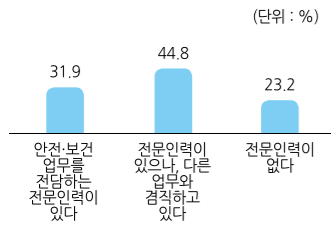


4. 자격증을 취득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보유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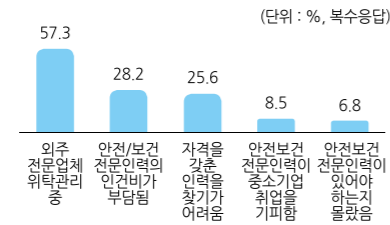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인력 보유여부에 관한 질문에는 '전문인력이 있으나, 다른 업무와 겸직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44.8%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있다'(31.9%), '전문인력이 없다'(23.2%)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전문인력을 보유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 그 이유를 묻자 '외주 전문업체 위탁 중'이 57.3%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다음으로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인건비가 부담됨'(28.2%), '자격을 갖춘 인력을 찾기가 어려움'(2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준수 여부



중대재해처벌법 미준수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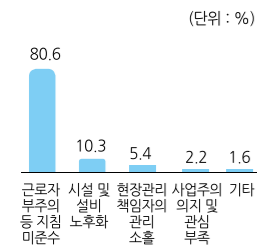


5. 현장 산업재해 발생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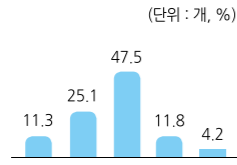
현장 산업재해 발생 원인으로는 '근로자 부주의 등 지침 미준수'가 80.6%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다음으로 '시설 및 설비 노후화'(10.3%), '현장 관리책임자의 관리소홀'(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예기치 못한/피할 수 없는 불의의 사고'와 '제도와 관리자 간 갭이 큼'이 있었다.

현장 산업재해 관련된 질문으로 조치를 통한 산재사고 감축 예상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50~75% 미만'이 47.5%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25~50% 미만'(25.1%), '75~100% 미만'(1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산재사고 예방을 위한 근로자 책임부와 필요 정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88.2%로 조사됐다. 반면, 필요하지 않다(별로 필요하지 않다+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11.8%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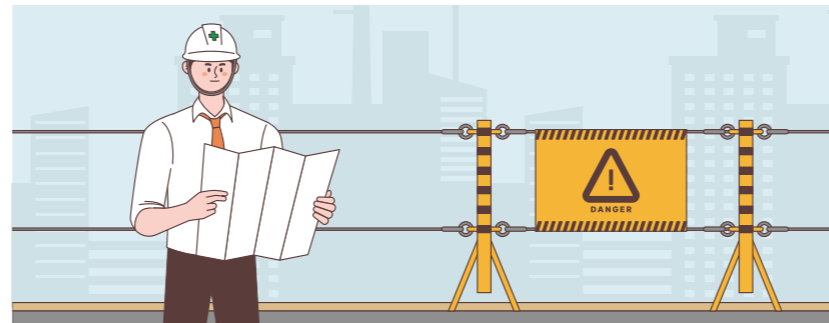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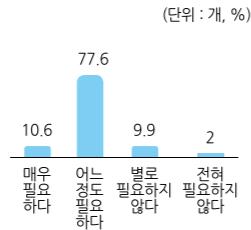
현장 산업재해 발생 원인



조치를 통한 산재사고 감축 예상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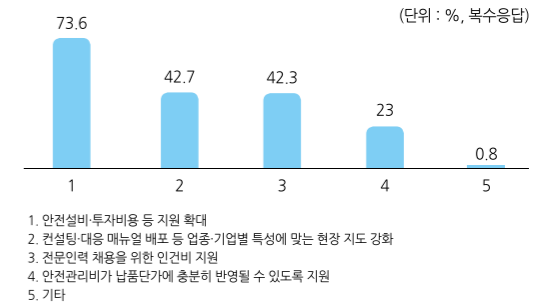
산재사고 예방을 위한 근로자 책임부와 필요 정도



6.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 정부지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 정부지원에 대해서는 '안전설비 투자비용 등 지원 확대'가 73.6%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컨설팅·대응 매뉴얼 배포 등 업종·기업별 특성에 맞는 현장 지도 강화'(42.7%),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4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사업주 의식 개선 교육 지원', '안전관리자의 교육 지원', '안전관리자를 경영관리자 소속이 아닌 노동부 소속으로 해야 함'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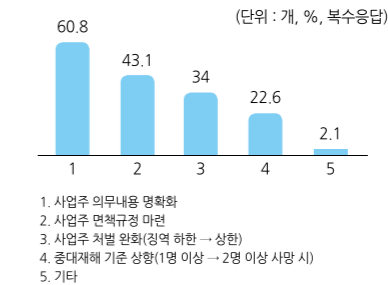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 정부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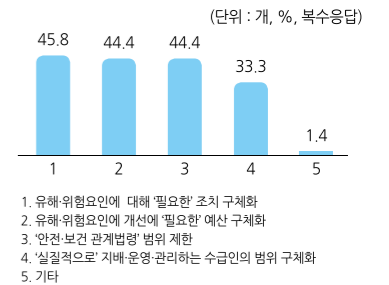
7. 중대재해처벌법의 바람직한 개정 방향

중대재해처벌법의 바람직한 개정 방향으로는 '사업주 의무내용 명확화'가 60.8%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사업주 면책규정 마련'(43.1%), '사업주 처벌 완화'(34.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기타 응답으로는 '근로자가 책임져야 한다', '분야별 겸직을 두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 '산업안전관리법으로도 충분하다' 등이 2.1%를 차지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바람직한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필요한' 조치 구체화'가 45.8%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그 다음으로 '유해·위험요인에 개선에 '필요한' 예산 구체화', '안전·보건 관계법령' 범위 제한'(각각 4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폐지되어야 한다'가 1.4%를 차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바람직한 개정 방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바람직한 개정 방향



2022년 제1회 이사회 및 제23기 정기총회 개최

한국RC협의회는 '2022년 제1회 이사회 및 제23기 정기총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였다. 주요 안건으로는 ①2021년도 사업 및 결산보고, ②2022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③임원 개선, ④신규 회원사 가입(케이씨아이) 안건에 대해 심의하였고,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2022년 RCLG 상반기 회의 참가

2022년 상반기 국제화학단체협의회(ICCA, International Council of Chemical Association) RC 리더십 그룹 회의를 지난 3월 15일(화)~16일(수)에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하였다. 30여 개 회원국 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RC자체평가 톨 개발, ICCA 멘토링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국가별 RC 이행 현황 등을 공유하였다.



2022년 APRO 상반기 회의 참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APRO(Asia-Pacific RC Organizations) 회의가 지난 6월 2일(목)에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되었다. 본 회의에서는 2022 APRCC(Asia Pacific Responsible Care Conference) 개최 계획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APRCC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RC 활성화를 위해 격년으로 개최하며, 2019년에는 한국에서 개최하였다. 당초 2021년에는 대만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사태로 개최를 1년 연기하였다. 개최국 대만으로의 외국인 출입국이 여전히 자유롭지 않아 2022년 12월 1일(목)~2일(금) 양일간 온라인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2022년 제1~2회 운영위원회 개최

한국RC협의회는 2022년 4월 27(수)에 김범대 RC운영위원장(듀폰코리아) 및 운영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제2회 운영위원회'를 오프라인으로 개최하였다. 2022 열려라! 즐거운 화학세상 시즌2 개최 계획 및 대행사 선정 등에 관해 심의·의결하였다.



2022 열려라! 즐거운 화학세상 온라인 개최

2022 열려라는 2003년부터 한국RC협의회와 회원사가 함께 개최한 지역사회 사회공헌 활동으로, 2021년부터 비대면 행사 개최를 위해 온라인으로 전환하였다. 올해에도 어린이 화학기자단 300여 명을 선발하여 어린이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환경을 마련하여 화학 기사 작성, 글짓기, 실험 키트 및 영상 제공, 만화 등의 다양한 화학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7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0일 동안 활발한 활동을 하며 포인트를 가장 많이 쌓은 어린이들을 선발하여 회원사 견학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www.chemworld.kr



롯데케미칼

2030년 고부가 스페셜 & Green 사업 확대
종합화학사 변신

1

롯데케미칼이 5월 19일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롯데케미칼의 미래 비전과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롯데케미칼은 김교현 부회장과 황진구 기초소재사업대표 겸 수소에너지사업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롯데케미칼 2030 비전 & 성장전략』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롯데케미칼은 이날 발표를 통해 새로운 기업 비전 / 슬로건을 선보였다. 나아가 2030년까지 재무적 목표로 '매출 50조원 달성', 비재무적 목표로 '탄소감축성장'을 내용으로 하는 <2030 비전>을 제시했다.

롯데케미칼은 2030년 매출 50조 원 달성을 위해 △ 범용 석화사업의 경우 지역 다변화와 제품경쟁력 확대 등을 통해 2021년 기준 매출액 11조 원을 20조 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 고부가 스페셜티 사업은 기존 스페셜티 제품군 확대와 범용사업 제품의 고부가화, 바이오 소부장·친환경소재 등 신규 사업군 진출을 통해 7조 원에서 18조 원 규모로 늘리며, △ Green 사업은 매출 총 12조 원 규모로 사업을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애경케미칼

친환경차 도입으로
온실가스 대폭 감축

2

애경케미칼이 친환경 업무용 차량 도입으로 연간 73톤이 넘는 온실가스를 감축한다. 이는 나무 6,400 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온실가스 양과 맞먹는다. 애경케미칼은 최근 업무용 차량 32대를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한 친환경 차량(97g/km)은 이전에 활용했던 차량(132g/km)에 비해 35g/km 가량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어, 1대당 월 평균 운행거리를 고려하면 연간 73.6 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애경케미칼 관계자는 "업무용 차량의 경우 완충 시 주행거리가 긴 하이브리드 차량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며 "친환경 차량 도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이고, 임직원들의 업무 편의성과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환경 친화적인 경영, 임직원 만족도 제고 등 다양한 부문에서 ESG 경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SK머티리얼즈

美 탄소중립 선도기업
8Rivers社 1,200억 투자

3

소재 투자전문회사 SK머티리얼즈가 차세대 CCUS 기술을 보유한 8리버스(8Rivers)사에 1억 달러(약 1,200억원)를 투자한다고 3월 8일 밝혔다. 8리버스사는 클린전기와 수소연료 양영역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혁신적인 CO₂ 저감 특허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다.



SK머티리얼즈는 8리버스사 기술에 대한 글로벌 협력 및 아시아 독점사업권을 활용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중국, 말린, 인니 등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고 풍부한 CO₂저장 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에서 8리버스사와 조인트 벤처(JV)를 설립, 클린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국내에서는 8리버스사 기술을 적용한 플랜트 건설을 통한 블루수소 및 클린전기 동시 판매로 경제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SKC

올해 1분기 사상 첫 분기
매출 1조 원 돌파

4

SKC가 1분기 매출 1조 1,206억 원, 영업이익 1,330억 원을 달성했다. SKC의 분기 매출이 1조 원을 넘어선 건 처음이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50.5%, 영업이익은 57.6% 증가했다.



SKC는 10일 종로구 SKC 본사에서 이용선 SKC 인터스트리소재사업부부장, 최두환 경영지원부부장 등 주요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1분기 경영실적을 발표했다. SKC 실적발표 현장은 유튜브로도 생중계했다.

1분기 SKC는 모든 사업부문에서 성장세를 나타냈다. 먼저, 2차전지용 동박사업은 매출 2,125억 원, 영업이익 245억 원, 화학사업은 매출 4,348억 원, 영업이익 861억 원을 달성했다. 또한, 인터스트리소재사업부문 역시 매출 3,354억 원, 영업이익 280억 원을 기록했다.

LG화학

LG화학-KIST,
이산화탄소를 일산화탄소로
전환하는 기술 개발

5

LG화학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공기 중 이산화탄소를 플라스틱 원료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의 발판을 마련했다. LG화학은 5월 9일 KIST와 공동연구를 통해 이산화탄소(CO₂)를 일산화탄소(CO)로 전환하는 효율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전기화학 전환 반응기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LG화학이 이번에 개발한 반응기는 일산화탄소뿐만 아니라 각종 연료 및 화합물의 원료인 합성가스(Syngas)도 만들 수 있다. 일산화탄소와 수소의 비율을 전압 조절로 손쉽게 제어해 다양한 종류의 합성가스 제조가 가능한 것은 물론 기술 확장이 용이하다. 특히, 이산화탄소 분해 및 환원에 사용되는 전류 효율이 90% 이상으로 지금까지 논문으로 보고된 수치 중 가장 높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반응기 내 셀을 옆으로 쌓는 스택(Stack) 공법을 적용해 현존하는 전기화학적 반응기 중 상업화를 시도할 수 있는 최적의 규모를 구현했다. LG화학이 이번에 개발한 반응기의 크기를 10배 이상으로 더 키워 실제 양산이 가능한 기술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GS칼텍스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친환경 바이오 사업
공동 개발 협력 강화

6

GS칼텍스가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손잡고 친환경 바이오사업을 강화해 나간다. GS칼텍스는 지난 4월 말 서울 강남구 GS타워에서 허세홍 GS칼텍스 대표와 주시보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바이오사업 공동 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월 1일 밝혔다. GS칼텍스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GS칼텍스의 바이오연료 생산기술과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보유한 바이오원료 정제 인프라를 활용하여 원료 정제부터 바이오 케미칼 제품 생산까지 밸류체인(Value Chain) 구축을 통해 바이오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양사는 인도네시아에 친환경 국제인증 받은 원료정제 시설과 바이오디젤 공장을 건설하고, 향후 재생 원료 기반의 바이오항공유 등 차세대 바이오연료(Bio-Fuel) 사업을 위해서도 공동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한화솔루션

재생 소재로
친환경 포장재
시장 진출

7

한화솔루션 케미칼 부문은 rPE 포장백을 자사 제품 포장에 사용한다고 4월 18일 밝혔다. rPE는 각종 폐기물에서 추출한 폐플라스틱을 고품질 재생 원료로 가공한 소재다. 한화솔루션은 기존 산업용 포장백에 쓰이는 일반 폴리에틸렌(PE) 소재를 재생 소재인 rPE로 대체해 자원 순환 효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화솔루션은 산업용 재생 포장백을 시작으로 생필품 포장재, 화장품 용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rPE 소재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공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해당 분야의 기업들과 MOU를 체결하는 등 자원 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과 연구개발(R&D)을 추진하고 있다.

효성화학

ESG경영 실천의지 공표

8

효성그룹이 28일 '윤경(윤리경영) ESG 포럼' 주최로 서울 서대문 핀란드타워에서 개최된 '제19회 윤경 CEO 서약식'에 참여해 ESG 경영 실천을 다짐했다. 지주사인 (주)효성을 비롯한 효성티앤씨(주), 효성첨단소재(주), 효성중공업(주), 효성화학(주) 등 5개사 대표이사들은 서약식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 ▲사회가치 실현에 협력 ▲산업계의 ESG 문화 확산 ▲미래 세대를 위한 더 나은 사회와 환경에 최우선 가치를 두기에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효성 김규영 대표이사 부회장은 "윤리경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경영의 토대로 삼아야 한다"며, "윤리경영을 효성의 DNA로 정착시키고, ESG경영을 통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일반회원

- | | |
|-------------|---------------|
| 금호석유화학(주) | (주)LG화학 |
| 금호피앤비화학(주) | LXMMA(주) |
| DIG에어가스(주) | 여천NCC(주) |
| 대한유화(주) | OCI(주) |
| 동서석유화학(주) | 용산화학(주) |
| 동우화인켐(주) | 이수화학(주) |
| 듀폰코리아(주) | 이스트만화이버코리아(주) |
| DL케미칼 | 인피니움코리아 |
| 랑세스코리아(유) | GS칼텍스(주) |
| 롯데엠시시(주) | (주)케이씨아이 |
| 롯데이네오스화학(주) | KPX케미칼(주) |
| 롯데정밀화학(주) | 코베스트로코리아(주) |
| 롯데케미칼(주) | 코오롱인더스트리(주) |
| 머크(주) | 태광산업(주) |
| 삼남석유화학(주) | 폴리미래(주) |
| (주)아케마 | 한국바스프(주) |
| 애경케미칼(주) | 한국알콜산업(주) |
| (주)에보닉코리아 | 한국ASK케미칼(주) |
| (주)SH에너지화학 | 한국이네오스티롤루션(주) |
| SK머티리얼즈(주) | 한국트린지오(유) |
| SKC(주) | 한화솔루션(주) |
| SK지오센트릭(주) | 한화토탈에너지스(주) |
| 에어리퀴드코리아(주) | 효성화학(주) |

준회원

- 대한석유협회
- 한국비료협회
- 한국석유화학협회
-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 한국클로르알카리협회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캘린더

2022

한국RC협회의 하반기 주요 일정

KRCC's major events of 2022

2022 열려라! 즐거운 화학세상 개최

목적 화학산업 홍보 및 사회 공헌
 기간 2022년 7월 7일(목)~10월 31일(월)
 대상 전국 초등학교 3~6학년
 내용 어린이 화학기자단 운영 및 미디어콘텐츠 (웹툰, 기사, 강연) 제작 등

2022 하반기 RCLG (RC Leadership Group) 회의

일정 2022년 9월 7일(수)~8일(목)
 장소 대면/비대면 동시 개최

2022 APRCC (Asia-Pacific Responsible Care Conference) 개최

일정 2022년 12월 1일(목)~2일(금)
 방식 온라인 영상회의



CONTACT

한국RC협회의 사무국
02.3668.6173



RESERVATION



회원사 가입안내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한국RC협회의
회원사 가입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